

AI도움받아 박명구쌤

Ai연꽃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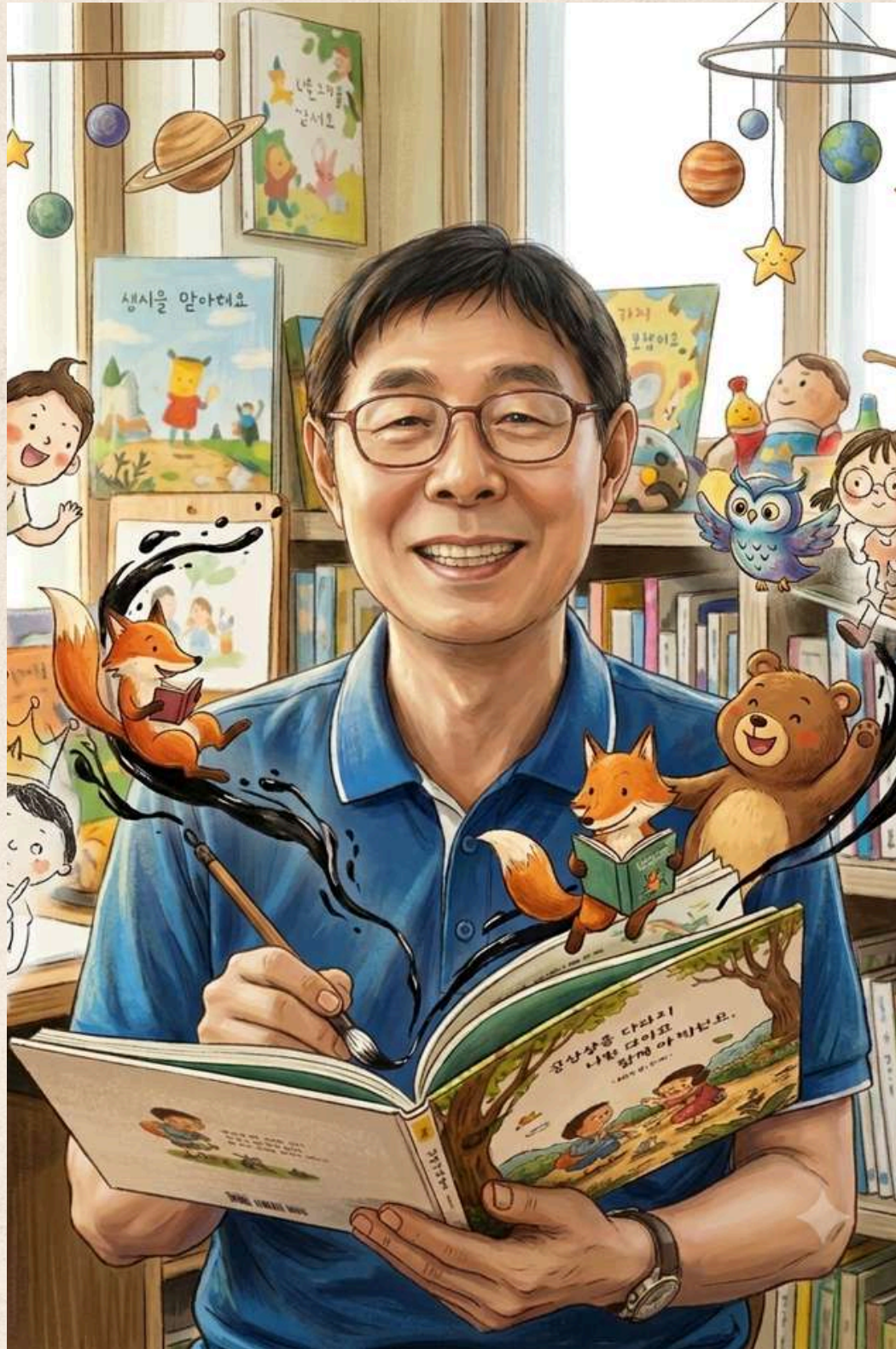
청개구리

작가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완성

작가프로필



안녕하세요,
'숲속의 이야기 할아버지'로 불리고 싶은 따뜻한 동화책 작가입니다. 집뒷에 교회가 있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정겨운 고향의 품을 기억하며, 산과 들, 나무와 가축을 돌보던 땀과 정성을 글에 오롯이 담았습니다.
가을 코스모스처럼 소박하고, 꾸밈없는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전합니다. 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아이들의 마음에 닿아, 언제나 '너는 참 잘하고 있다'는 아늑한 응원 의 목소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박명주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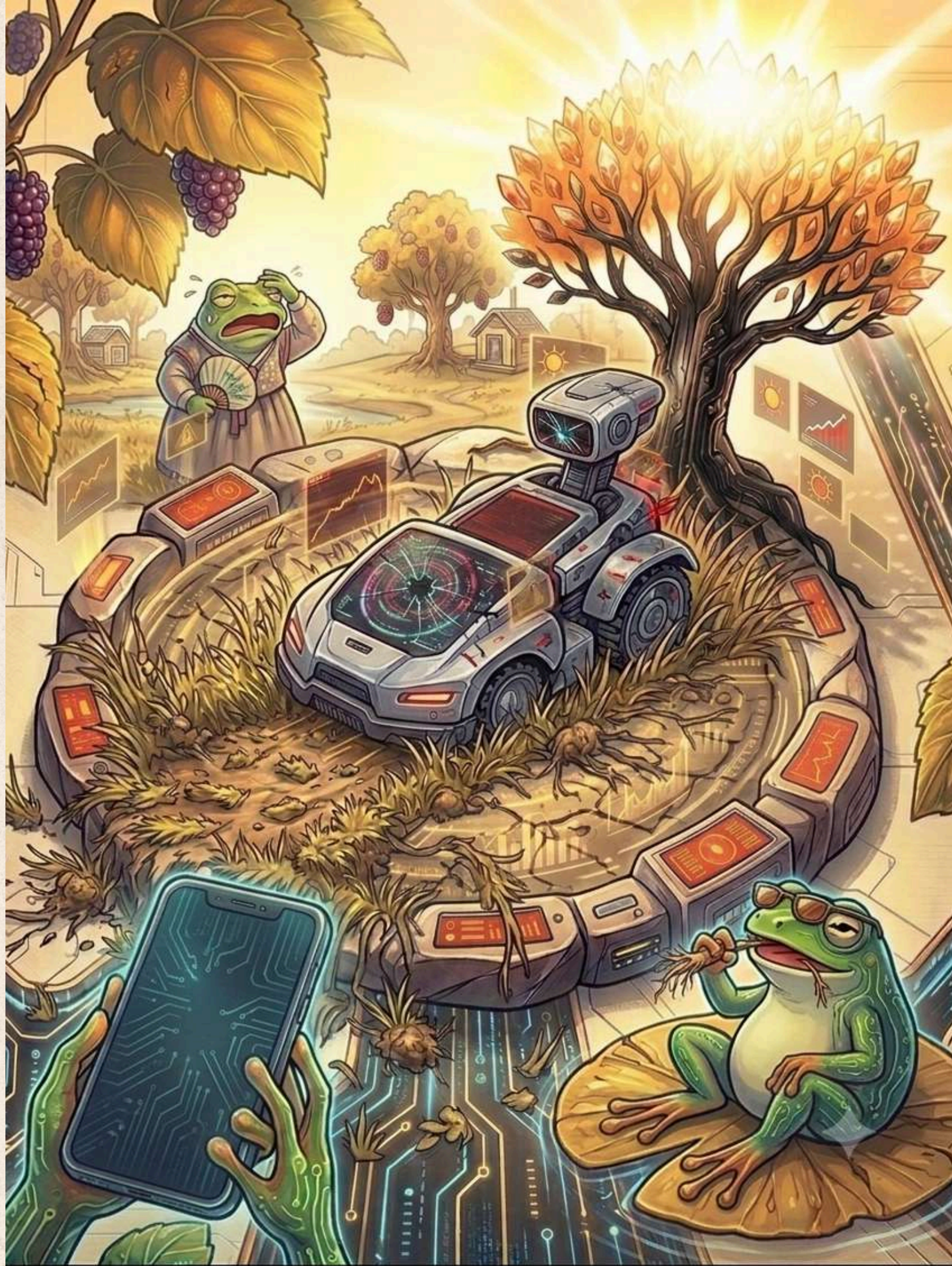
스마트 오디 연못 마을에는 하루 종일 헤드폰을 귀에 딱 붙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코딩 천재 개구리가 살았어요. 이름은 뽕악이! 엄마가 부르면 언제나 "뽕악뽕악!" 소리를 질러대서 붙은 이름이지요. 지금도 스마트폰 화면 속 고양이와 강아지가 "야옹, 멍멍" 춤추는 코딩 앱에 푹 빠져 눈을 떼지 못하고 있네요.



어느 날, 마을의 AI 잔디 깎기 로봇이 연못가 풀을 다 쥐어뜯어 놓고 뚝 멈춰버렸어요. 속이 터진 엄마 개구리가 한숨을 뚝 쉬며 뽕약이에 게 소리쳤죠.

"아따, 짬지(김치)처럼 팍 찢어지게 피곤하다, 피곤해! 뽕약아, 저 멍청한 AI 로봇 좀 거시기 (수리)해 보그라!"

하지만 뽕약이는 파리 음료수를 "스습~" 마시며 고개를 까딱였어요. 속으로는 반대로 할 생각만 가득했죠.



원래 이 마을의 AI 날씨 시스템은 연못을 촉촉하게 하려고 "토닥토닥 주르륵" 내리는 단비와 "쉬익 쉬익 살랑살랑" 부는 바람으로 코딩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청개구리 본능이 스멀스멀 올라온 뱀악이는 클라우드 서버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연못가에서 무시깡이(무)를 "천천히 짹짹" 씹어 먹으면서, 원래 코드를 싹 지우고 '짹짹한 햇빛 100배!'라는 엉뚱한 반대 코드를 입력해 버렸죠.



"비야 내려라!"라는 시스템 명령과 달리, 하늘에는 해가 구멍이 난 것처럼 짹 짹 뚫어요. 처음에는 다른 개구리들도 신나서 "하하하" 웃으며 햇볕을 즐겼지요. "아따, 날씨 한번 맛있당개! 개미가 있네 (매력 있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뜨거운 햇빛에 연못 물이 "쉬" 소리를 내며 바닥까지 짹짹 말라붙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지자 마을의 핵심 데이터 센터가
과부하로 비명을 질렀어요!
인공지능 디지털 나무가 "우르르광 광광!" 천둥소
리를 내며 빠지직 멈췄고, 연못 파도도 "철썽철썽"
거칠게 요동치며 통제 불능이 되었죠.
마침내 뽕악이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까지 뚝
꺼져버렸습니다.



스마트 연못 마을 전체가 먹통이 되자, 개구리들은 목이 메어 서버실 앞으로 몰려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따 씨그라미(새콤)한 맛이 싹 가셨네! 아따 새가 파지겠네(힘들어 죽겠네), 살기 났네(야단났네)!"

엄마 개구리도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메인 서버가 지쳐서 자빠졌다! 근디 서버실 안은 시방 전기가 사방으로 흘러서 겁나게 위험한게 왜만하면(무리하게) 절대 들어가지 마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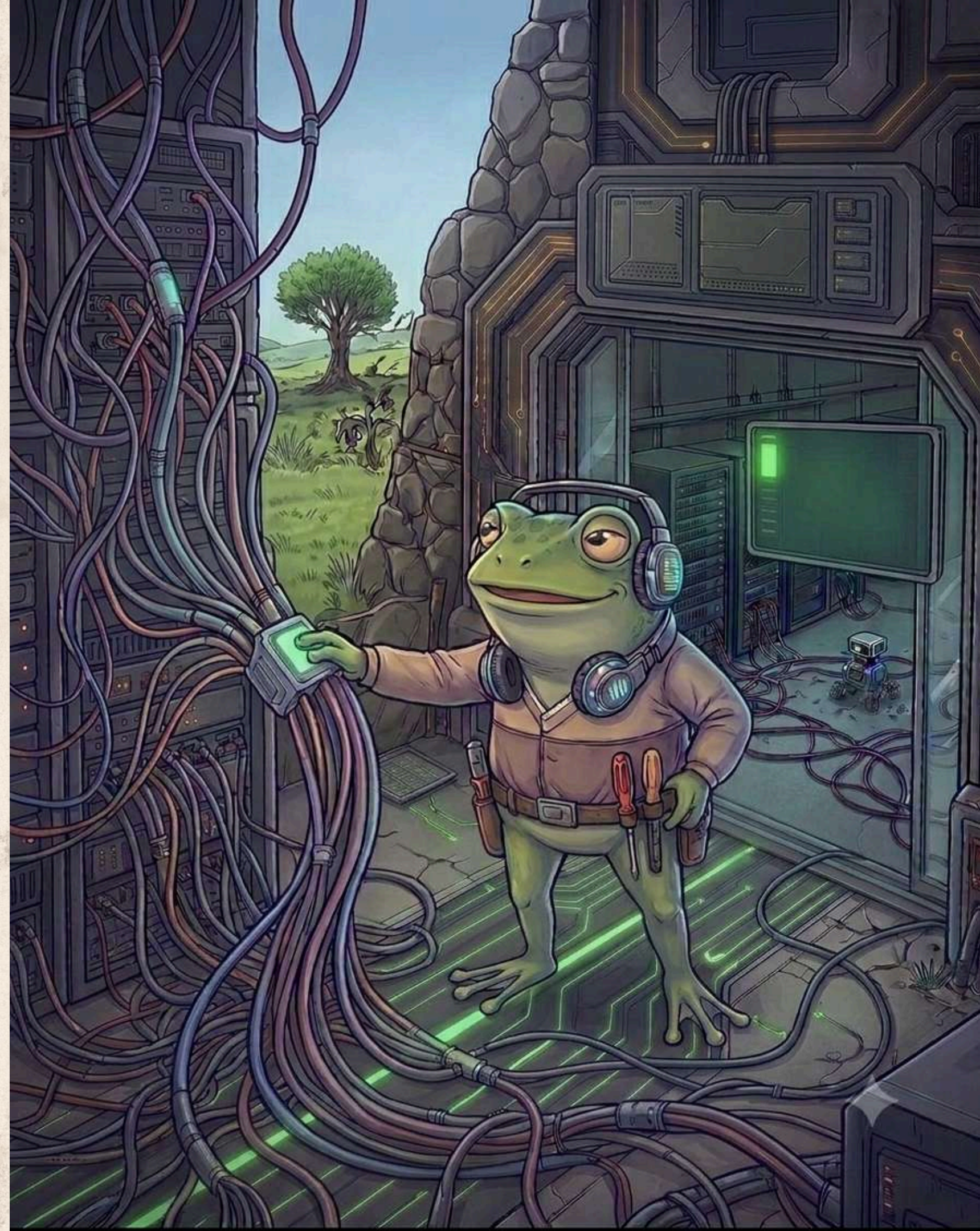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엄마의 말!
그 말을 듣자 뽕악이의 청개구리 본능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장난이
아니라
마을을 구하겠다는 착한 마음이었죠. 뽕악이는
코김을 "씩씩거리며" 서버실을 향해 용기 있게
달려 갔어요.



지지지직! 스파크가 튀는 서버실 안은 무서웠지만, 뽕악이는 썹-하- "심호흡"을 하며 참아냈어요. 헤드폰을 멋지게 고쳐 쓰고 구불구불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선 앞에 당당히 섰죠.

"맥없이(기운 없이) 앓아 울 때가 아니여! 뭐 땀시 그리냐? 내가 다 고쳐 볼 꺼야(고쳐버릴 테니까)!"



뽕악이는 머릿속으로 슈퍼컴퓨터처럼 연산하고 기억해 내며, 올바른 선들을 골라냈어요.
전라도 사투리처럼 구불구불 꼬여있던 복잡한 컴퓨터 코드들을 천재적인 손놀림으로 하나하나 올바르게 수정해 나갔답니다. 마침내 화면에 초록 불이 들어왔어요. "삐빅! 시스템 정상화!"



마을에는 다시 "슬렁슬렁" 맑은 강물이 흐르고,
새들이 "버긱버긱"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맞아! 거봐라! 아따 풍년이네, 잘 덩글어
(여물어) 졌네! 우리 뽕악이가 최고여!"

엄마와 마을 개구리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
어요. 이제 뽕악이는 무조건 반대로만 하는 철부
지가 아니에요. 언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쓰
고, 언제 엄마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아는 아주
똑똑한 '21세기형 디지털 청개구리'가 되었답니
다!

